메이저리그 소식

백차승 완투승

빅리그서 첫 쾌거…시즌 첫승

미국프로야구 시애틀 매리너스의 우완투수 백차승(27·사진)이 생애 첫 빅리그 완투로 시즌 첫 승을 거두는 기쁨을 누렸다.

백차승은 10일(이하 한국시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코메리카파크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방문경기에 시즌 4번째 선발등판, 9회까지 무사사구 쾌투를 펼쳐 삼진 4개를 곁들이며 6안타 2실점으로 막아 9-2로 완투승을 이끌어냈다.

백차승은 빅리그에서 처음 상대하는 디트로이트 타자들을 맞아 출발이 다소 불안했지만 수비와 타격에서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안정된 제구력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찾아갔다. 백차승은 1회 왼손 선두타자 커티스 그랜더슨에게 볼카운트 2-1에서 우월 1점 홈런을 내줬다. 이어 플라시도 폴랑코에게도 큼지막한 안타성 타구를 맞았지만 좌익수 라울 이바네스의 호수비로 가슴을 쓸어내렸고 게리 셰필드와 매글리오 오도네스 등 중심타선을 땅볼처리했다.

3회와 4회는 맞춰 잡는 피칭으로 6타자를 모두 범타 처리했다.

2회에도 선두타자인 카를로스 기옌에게 1루선상을 타고 흐르는 3루타를 맞고 숀 케이시의 희생플라이에 2점째를 내줬다.

시애틀이 4회 호세 기옌의 3점홈런으로 3-2로 뒤집은 가운데 백차승은 5회 크레이그 먼로에게 내야안타를 맞았지만 브랜든 인지에게 병살타를 유도해내는 노련함이 돋보였다.

이로써 백차승은 박찬호, 김선우에 이어 메이저리그에서 완투승을 거둔 3번째 한국인 투수가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KIA 성적 떨어지니 관중도

8개 구단 중 유일하게 감소…작년보다 1% 줄어

"관중수도 꼴찌라니…."

2007 프로야구가 관중이 크게 늘어 1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8개 구단 중 KIA만 유일하게 관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발표한 8개 구단 관중집계에 따르면 2007시즌 전체 일정의 21.2%인 107경기를 소화한 9일까지 총 관중은 93만3천11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3만3천588명) 대비 12%의 신장세를 보였다.

구단별로는 김재박 감독을 영입해 분위기를 쇄신한 LG 트윈스가 경기당 평균 관중 1만5천499명으로 지난 해보다 가장 많은 28%가 늘어났고, 돌풍의 롯데는 평균 1만4천635명으로 10% 증가했다.

또 삼성은 부진을 겪고 있지만 지난 해보다 14%, 두산은 10%, SK와 현대 9%, 한화는 8%가 늘어났다.

최하위권으로 처진 KIA만 유일하게 지난해 6만599명에서 현재 6만72명으로 1% 감소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같은 추세라면 10일 또는 11일에 100만 관중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996년 이후 11년만에 페넌트레이스 관중 4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상임 부회장제 폐지해야"

전남도민체전 살인사건 관련 도체육회 전무이사 대책회의

최근 발생한 전남체육회 소속 간부 살인사건과 관련 '전남도체육회 경기단체 전무이사'들이 상임부회장제도 폐지등 전남체육 발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도체육회 경기단체 전무이사들은 10일 오전 전남도체육회 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정확한 원인 규명 ▲전남도체육회 새로운 집행부 구성과 새로운 청사진 제시 ▲상임부회장제도 폐지와 경기인 출신 사무처장 단일체제 운영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남체육회 회장인 박준영전남도지사에게 전달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전무이사들은 전국16개 시·도 중 광주,전남, 제주만이 운영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인 상임부회장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전무이사들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지 보름여가 지났지만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다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전남체육행정이 공백상태에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전남도체육회장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박병열 전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체육회 사무처장과 갈등관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알려진 것이 불행스럽다. 명예가 회복되면 사퇴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프로축구 컵대회 PO진출

광주 '실낱희망' 자력으론 안돼

"광주 상무 마지막 희망은 있다."

프로축구 삼성 하우젠컵 2007 대회 조별리그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플레이오프 출전권 다툼도 불을 뿜고 있다.

B조의 FC서울은 9일 경남FC와 0-0으로 비기고도 남은 두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6강 플레이오프에 선착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안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는 지난해 K-리그 챔피언 성남 일화와 FA컵 우승팀 전남 드래곤즈에 6강 플레이오프 자동 출전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12개 팀이 6개 팀씩 2개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조 1위는 4강에 직행하고 A조 2위가 전남과, B조 2위가 성남과 오는 30일 6강 플레이오프를 갖는다. 6강 플레이오프부터는 모두 단판 승부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석 장의 플레이오프 티켓은 주인을 가늠하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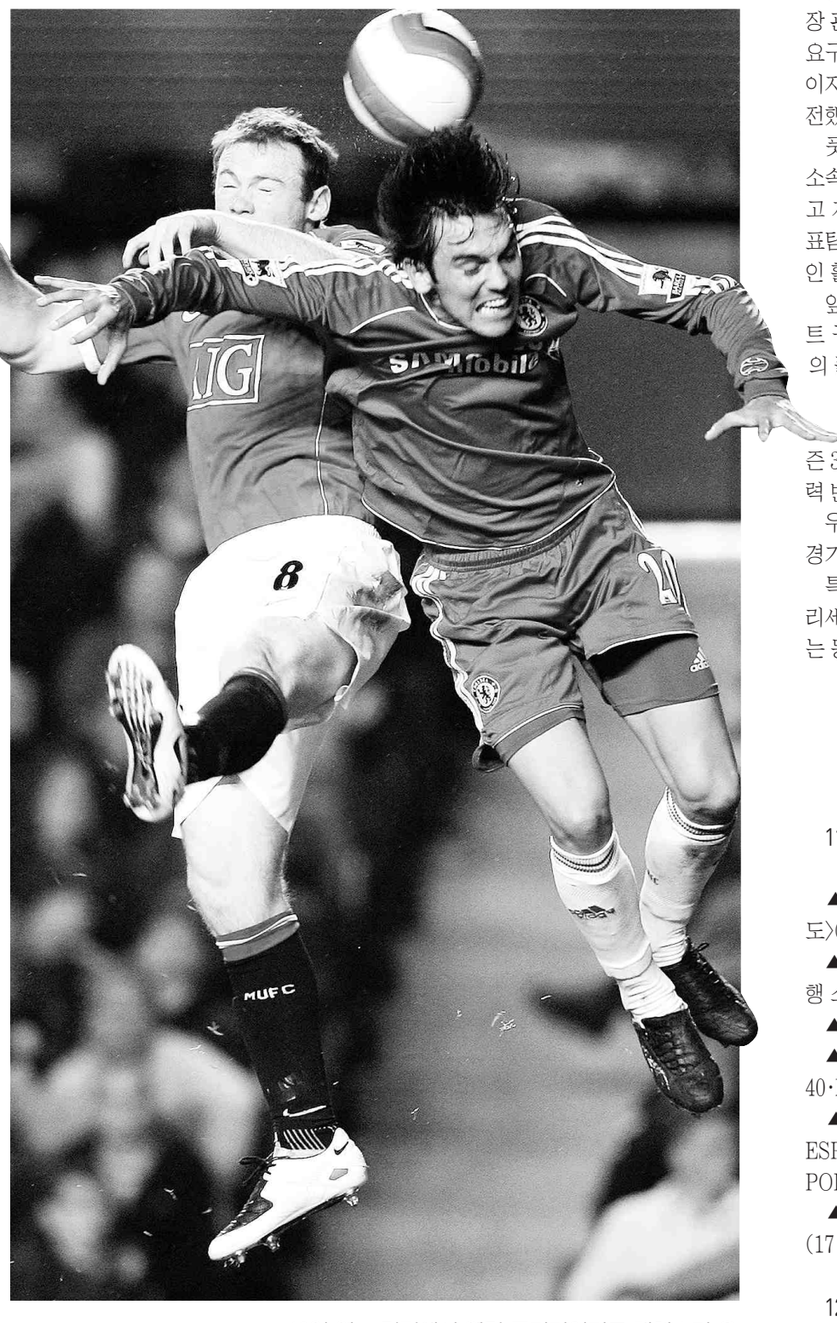
우선 티켓 1장이 남은 B조에서는 수원과 부산 아이파크, 대전 시티즌, 광주 상무가 남은 한 장의 6강 티켓을 놓고 혈전을 벌이고 있다.

광주는 남은 두 경기인 경남(16일·창원)과 대전(23일·광주)전에서 2승을 거둘 경우 승점 14점으로, 타 팀의 승패 여부에 따라 조 2위로 6강에 진출할 수 있다.

물론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 조 2위인 수원이 두 경기에서 모두 패하거나, 2무만을 기록해야 하고, 부산과 대전도 최대 1승 1패만을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 때문이다.

A조는 일단 울산 현대, 인천 유나이티드(이상 승점 15), 대구FC(승점 13)로 경쟁이 압축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맨유-첼시 무승부 10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첼시의 경기에서 양팀 선수들이 공중볼을 다투고 있다. 양팀은 이날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네덜란드 프로축구 FC 위트레흐트팀 조재진 영입 1순위

네덜란드 프로축구 1부리그(에레디비지에) 중위권팀 FC 위트레흐트가 일본프로축구 J-리그에서 뛰는 '작은 황새' 조재진(26·시미즈 S-펄스)을 영입 대상 1순위에 올려놓았다고 네덜란드 축구 전문지 '풋발 인터내셔널' 최신호가 보도했다.

풋발 인터내셔널은 위트레흐트의 후크 보이(47) 감독이 인터뷰에서 "헤딩력과 발 기술을 두루 갖춘 조재진은 우리 팀이 찾는 공격수다. 다음 시즌 곧바로 투입이 가능하다. 현재 네 명의 영입 대상 중 가장 관심이 가는 선수다. 시미즈 측의 이적 요구액과 우리 구단의 재정상황이 문제이지만 잘 해결될 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풋발 인터내셔널은 조재진이 시미즈 소속으로 82경기에 출전해 36골을 넣었고 지난 해 독일월드컵축구에서 한국 대표팀의 주전 스트라이커로 나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고 자세히 소개했다.

앞서 일본 스포츠 신문들도 위트레흐트 구단 관계자들이 일본에 와서 조재진의 플레이를 지켜봤다고 보도했다.

13승9무12패로 18개팀 중 9위에 머물고 있는 위트레흐트는 이번 시즌 34경기에서 41골 밖에 뽑지 못해 공격력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우승을 확정한 PSV 에인트호벤은 34경기에서 75골을 터트렸다.

특히 위트레흐트 포워드진은 로빈 넬리세가 2골, 주세페 로시니가 1골에 그치는 등 화력이 빈약하다.

TV

11일(금)

▲메이저리그〈샌프란시스코-콜로라도〉(09 : 25·Xports)

▲한국여자 프로골프 대회 KB국민은행 스타투어 2차 2R(13 : 00·Xports)

▲한강마라톤(13 : 50·MBC)

▲ITF 김천 국제남녀테니스대회(14 : 40·MBC)

▲프로야구〈KIA-SK〉(18 : 30·MBC ESPN), 〈현대-삼성〉(17 : 40·KBSN S-PORTS)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주니치〉(17 : 50·SBS스포츠)

12일(토)

▲PGA 투어 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2R(02 : 00·SBS스포츠)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구인·영업·모임·모집
사설금융·매입·부동산
매매·임대·전세·분양
◆광주은행 : 001-107-228160
◆농 협 : 617-01-108334
※예금주:(주)광주일보사
• ☎(062)220-0524
• 직통:(062)227-9600
• FAX:227-9500

조립식 건축 전문
• 모든 조립식건물 칸막이공사
• 공장,창고,신축,전원주택,농가
• 철구조물,H빔,콘크리트,각종구조물철거
• 견적및 도면계획 시외 출장
• 저렴한비용,가족같은 마음으로 직접 지어드립니다.
☎ 062)956-3229, 010-6622-0460
에이스판넬

支社영업하실분
취급품:한자서적
지 역:광주,전남 전지역
거래처:각학교,관공서
자 금:500만이상,승용차
자 격:25세~48세 미만 남·녀
월수입:200~500만 가능
도서출판 명문서림
☎:051-807-7731

신바람부동산
T.016-610-6046
대지매매
상무지구 약50평
운천저수지 부근
도심조망권 최고
- 대형식당 (레스토랑)
- 대형회센터
- 병원부지
〈매매가 25억〉

대지부동산
T.062-371-2440
011-627-3003
임야,목장,아파트 전원주택 전문
▶북구 망월동 동초교 2차선대로변 주거지역 230평 급매 당85만 조정가
▶함평 월아면 외치리 삼거리코너 대지340평 국유지포함600평 찻집, 주유소,휴게실적합 당42만 조정가
▶광산구 삼거동 주택 대지100평 매4500만
▶남구 승촌동 주거지역900평 도로접 공장, 물류창고최적 당26만
▶서구 매월동 자연녹지 470평 당140만 전원주택,물류창고최적
▶동구 내남동 주거지역 1000평 당70만 도로접,물류창고분할가
▶북구 지야동 답1000평 생산녹지2차선접 당45만
▶담양군 수북면 답900평 당7만 양면포장도로접
▶화순읍 춘양면 전 200평 평당 4만5천 관리지역 묘지적합 자동차 진입로 있음
▶남구 회장동 1,000평 30만 1종주거지역
▶서구 용두동 답930평 당12만
▶서구 세하동 전310평 일반주거지역 당120만 2차선접
▶서구 세하동 답1,000평 당20만 투자최적지
▶북구 망월동 답800평 당25만 2차선접
▶서구 용두동 전500평 당55만 주거지역, 2차선접 대형차량진입가
▶장성 남면 월곡리주거지역 520평 2차선접 당50만 창고,공장적합
▶서구 마륵동 LG자이아파트입구 주거지역300평 도로접 당170만 유치원,물류창고,투자최적
▶동구월남동 주거지역400평 당80만 도로접 창고,물류센타 투자최적
▶광산구 신창동 자연녹지720평 당70만 도로접 유치원,물류창고최적
회순읍근교 전원주택지 다량 보유

전원부동산
T.011-640-2373
급매 및 임대
• 현식당 영업중
• 소재지:담양군 월산면
• 평수:1064평 (구거 400평별도)
• 용도:식당,연수원,펜션, 절터,전원주택단지등
• 매가:상담후 결정 (최염가로상담)
※ 자연경관수려 (조경시설 완벽)
※ 계곡,수영장,맥반석물을 지하수로 사용함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ASSET KOREA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법원앞 지산주유소옆) ☎ 062-236-3400
변호사와 함께하는 생활법률 / 부동산경매 무료상담
부동산경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우량물건을 통해 최고의 수익을 내는 일은 [전문가]만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증식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근린시설/ 원룸상담 대표이사 010-7570-7525
모텔/근린상가 상담 김찬승 이사 010-8033-0114
아파트/빌라 상담 황정권 팀장 010-2648-2550
주택/재개발 상담 조성훈 이사 010-8003-7007
상가주택 상담 박경원 팀장 010-2611-5598
공장/토지 상담 심 현철 팀장 016-9660-3225
광주,전남북 무료경매정보 홈페이지 http://www.assetkorea.com
재테크예약=[현장조사/권리분석/수익분석/입찰가산정/대출진행/명도까지 원스톱서비스]
행복한 경매를 위한 탁월한 선택!! 부동산경매 전문회사(주)에셋코리아

정밀하고 과학적인 검증
(주)홈컨부동산 리서치 중 개
상무지구 시청앞 한국은행후문옆
☎062)233-2222 www.homecon.co.kr(부동산지식1등)
一生 최대의 쇼핑! 직접하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信義'와 '科學', 매수 대행 전문
계약에 집착하지 않고, 최적 물건을 찾아서 안내합니다
시장흐름, 收支분석, risk분석 등 정밀분석후 안내합니다
專屬매수의뢰계약을 체결하고, 買受만 대행합니다
고객과 면접하고, 공감대 형성 후 업무를 개시합니다
信義를 지키는 공동중개를 하겠습니다(약정서 교부)
명예와 양심,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문서로 합니다
천천히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대표 주요경력
• 전남고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94년)
• 삼성그룹 기업법무 약10년
- 해외합작계약, M&A계약
- 기업 상장, 사업분석 및 IR업무
- 소송, 각종의견서 업무 지원 등
• (주)갤러리존 운영법인 대표(시내)
• (주)다승인터내셔널 대표(무역)
• (주)사랑방신문사 부서장
• 부동산업관련 실무교본 저자
※ 외국기업 등 원어상담 가능
책임연구원 공인중개사 박 길 수
하나를 하더라도, 바르고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한번 인연, 평생 소중히
네이버에서 홈컨부동산 만 치세요